

U-23 아시안컵, UAE 상대 '첫 승'

황선홍 한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승에 기뻐했다.

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7일 오전 0시30분(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후반 49분에 나온 이영준(김천)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거둔 한국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조 2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1-0으로 꺾은 일본과 함께 B조 공동 선두로 출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총 16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가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팀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한국 축구는 19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 도쿄올림픽까지 9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며

UAE와 조별리그 첫 경기서 1-0 신승
황선홍 감독 "선수들의 의지로 해냈다"



17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한국 대 UAE 경기에 앞서 황선홍 감독이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올림픽 최다 연속 출전 세계 신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다. 이번 파리행도 확정하면 기록을 '10회'로 늘릴 수 있다.

UAE를 비롯해 일본, 중국과 한 조에 속해 험난한 조별리그 여정을 견

는 황선홍호에 1차전 승리는 매우 긍정적이다.

황 감독은 경기 후 AFC를 통해 "어느 대회든 첫 경기는 변수가 많아 항상 어렵다"면서도 "오늘도 힘든 경기를 펼쳤지만 선수들의 의지로 해냈다"고 경기를 총평했다.

이어 "후반에는 공격 계획을 바꿨다. (처음에는) 2선과 3선 사이를 활용하려 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기대에 못 미쳤다"며 "갑자기 계획을 바꿨으나 선수들이 (바꾼) 내 계획대로 경기에 임했다. 이 부분을 칭찬하고 싶다"고 선수들을 칭찬했다.

결승골을 기록한 이영준도 "세트 피스를 혼란했는데, 준비한 대로 득점이 나와 정말 기쁘다. 이번 득점은 혼자 넣은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만들어 더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전달한 팀 동료인 (이태석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결승골에 도움을 기록한 이태석(FC서울)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황선홍호는 오는 19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중국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뉴스



'파리올림픽 D-100' 선전 다짐한 국가대표 선수들 17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이기홍(앞줄 왼쪽 세번째) 대한체육회장, 정강선(앞줄 왼쪽) 선수단장, 황선우(앞줄 왼쪽 네번째), 이다빈(앞줄 왼쪽 두번째) 선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

'또 터졌다' 김하성, 시즌3호 스리런 홈런...샌디에이고 3연승

지난 13일 다저스전 이후 4일 만에 손맛...3타수 1안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16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4 미프로야구(MLB)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 1회초 3점 홈런을 친 후 홈에 들어오고 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29)이 시즌 3호 홈런을 터뜨렸다. 김하성은 17일(한국시각) 미국 위

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

와 원정경기에 유격수 겸 5번 타자로 선발출전, 3타수 1안타 1볼넷 3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1-0으로 앞선 1회초 스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1사 2, 3루에서 첫 타석에 등장한 김하성은 밀워키 선발 웨이드 마일리의 2구째 87.9마일(141.4km)짜리 몸쪽 낮은 커터를 잡아당겨 좌월 아치를 그려냈다.

홈런 타구속도는 101.5마일(163.3km)이었고, 비거리는 116m였다.

지난 13일 LA 다저스전에서 홈런을 쳤던 김하성은 4일 만에 다시 홈런 손맛을 봤다.

3회 무사 1루에서 희생번트로 임무를 책임진 김하성은 5회 고의사구를 얻어냈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4-1로 앞선 7회 무사 만루에서 타석에서는 2루수 뜬공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9회에는 2루 땅볼에 그쳤다.

김하성의 홈런을 앞세운 샌디에이고는 밀워키를 6-3으로 꺾고 3연승 행진을 벌였다.

양궁 임시현, 파리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최우선 목표"

한국 여자 양궁 에이스 임시현(한국체대)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모두 따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임시현은 17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2024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원팀(ONE TEAM)! 원 드림(ONE DREAM)!'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 양궁은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당차게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따 종합 15위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최대 6개의 금메달을 딸 것으로 보고 있다.

"체육회 목표가 5개인데 양궁 대표팀의 목표와 같다"는 말에 임시현은 "저는 체육회가 잡은 목표가 5개인 줄 몰랐어요"라고 답해 좌중을 웃겼다.

광주오픈 챌린저 '홍성찬' 마르첸코 제압

단식 16강 진출...지난 부산오픈서 준우승



홍성찬(172위·세종시청)이 남자프로테니스(ATP) 광주오픈 챌린저 단식 16강에 진출했다.

홍성찬은 1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단식 1회전에서 일리아 마르첸코(239위·우크라이나)를 2-0(6-3 6-2)으로 꺾었다.

지난 14일 막을 내린 부산오픈 챌린저에서 준우승한 홍성찬은 개인 최고 순위인 172위에 올랐다. 홍성찬이 이날 꺾은 마르첸코는

2016년 US오픈에서 16강까지 진출했으며 개인 최고 세계랭킹은 49위다.

홍성찬은 2회전에서 시마부쿠로 쇼(173위·일본)와 대결한다. 시마부쿠로와 2019년, 2020년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던 홍성찬은 이후 세 차례 대결에서는 모두 졌다. 상대 전적에서 2승 3패로 밀린다.

정운성(383위·안산시청)과 남지성(708위·세종시청)도 모두 1회전을 통과했다. /김도기 기자

주메뉴 : 삼형제생갈비, 삼형제꽃살
예약 061-337-3836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5984-91 (나주 혁신도시 빛기동 중흥3차 옆)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숯불생갈비 1인분(180g) 9,900원

NAVER

삼형제

좋아요

[삼형제 철학]

최상의 맛

최상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